

카탈루냐 독립 움직임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조 민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minhyunc@cu.ac.kr)



국문요약

2017년 가을 스페인의 한 자치지역인 카탈루냐의 독립 움직임이 중요한 뉴스였는데, 그 배경에는 스페인의 역사적인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 언어, 문화를 소유했으며, 이는 각 지역의 독립 또는 분리주의 운동의 동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카탈루냐 독립 움직임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카탈루냐의 형성에서 프랑코 독재 시기까지의 역사적 상황 그리고 스페인의 민주화이후 지방자치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자치권의 확대를 넘어서 분리 독립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최근의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주제어 : 카탈루냐, 자치지역, 독립 움직임, 스페인 역사

I. 서론

2017년 가을 카탈루냐의 독립 문제가 중요한 뉴스가 되면서, 카탈루냐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다. 이 이름은 스페인을 구성하는 17개의 자치지역(*comunidad autónoma*) 중의 하나를 말한다. 그런데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등은 사람들이 스페인과 관련하여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하지만, 카탈루냐는 그리 쉽게 떠올리는 말이 아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스페인하면 열정, 태양, 관광, 축구 등의 이미지가 연상된다고 할 때, 이 나라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독립 움직임이 우리의 화두로 등장한 것도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면은 우리가 보통 한 국가를 이해할 때, 어떤 피상적인 이미지에 근거하여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지난해 가을 쏟아진 카탈루냐의 독립 움직임에 대한 일련의 소식이 스페인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이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20세기 스페인의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스페인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

신이시여, 스페인은 무엇인가? (...) 유럽의 정신적 꽃인 스페인, 대륙 영혼의 기수로서 이 스페인은 대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말해다오. 분명한 한 마디, 정직한 영혼과 섬세한 정신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한 마디, 스페인의 운명을 비추는 단 한 마디를 말해다오?(Ortega y Gasset 1983a, 360)

‘스페인은 무엇인가?’라는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반복적인 질문은 결국 이 나라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무엇보다 스페인이 갖는 다양성에 기인한다. 이 나라는 ‘작은 대륙’으로 불릴 만큼 어떤 한 대륙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후, 풍토, 인종, 언어적 이질성을 갖고 있다. 특히 수많은 민족의 유입이 두드러지는데,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위치하며,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스페인에는 역사상 다양한 민족이 들어와서 정주하였다. 그만큼 역사 속에서 스페인의 얼굴은 이베리아인, 켈트인, 그리스인, 페니키아인, 카르타고인, 로마인, 그리고 고트인, 아랍인, 유대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형상을 갖추었다고 한다(카를로스 푸엔테스 1997, 18).

이렇게 스페인이 갖는 태생적 다양성은 이후의 역사 전개에서 하나의 구심점을 기반으로 한 인위적인 통합과 지역성에 바탕을 둔 분리라는 서로 상반된 힘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했다.

여기서는 스페인에 대한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카탈루냐 독립 움직임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스페인의 역사적 현실 속의 카탈루냐

1. 스페인의 형성과 카탈루냐

서로 상이한 지형적 특색과 다양한 기후로 인해 각 민족별로 고립되어 있던 이베리아 반도가 하나로 통일된 사건은 로마의 이베리아 정복에서 비롯되었다. 기원전 3세기 무렵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로마와 아프리카 북부의 카르타고가 대립했는데, 이는 세 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전쟁 중에서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의 심장부까지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때 로마는 카르타고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베리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반도를 정복하려고 했고, 200년간의 긴 정복 전쟁 끝에 이 지역을 차지하고 히스파니아(Hispania)라는 이름을 붙여서 통치하였다. 로마의 스페인 지배는 원래부터 지리적·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이베리아 반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로마의 법은 일체감을 가진 하나의 정치체로 반도를 통합시킴으로써 순전히 지역적인 정체성과는 다른 것으로 하나의 히스패닉(Hispanic)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이 점에서 스페인 자체가 로마의 발명품이며, 스페인의 역사는 로마 시대에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레이몬드 카 외 2006, 56).

한편, 5세기 초에는 게르만족의 일파가 스페인에 들어와 쇠약해진 로마제국을 물리치고 비시고트 왕국을 세웠는데, 이들도 결국은 로마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고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하나로 통일하여 통치하였다.

로마와 비시고트 왕국 시대에 통일되었던 스페인이 여러 부분으로 갈라진 계기는 711년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의 침입에서 비롯된다. 북부 일부 지역만을 제외하고 반도 전역이 아랍의 지배하에 놓였을 때, 기독교 세력이 반격을 가하는 레콩키스타(국토회복전쟁)가 시작되었는데, 이 전쟁은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 십자군 전쟁의 성격을 띠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진 각 지역 정체성 형성의 기원을 이루게 한다. 왜냐하면 국토회복전쟁이 아스투리아스, 나바라, 레온, 카스티야, 아라곤 등과 같은 이베리아 반도 내의 여러 기독교 왕국들에 의해서 각각 독자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 이때 수립된 각각의 왕국들이 현재 스페인의 주요 자치지역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탈루냐도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한다. 당시 스페인의 동북부 지방은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가 이슬람 세력을 격퇴하고 정복한 지역에 여러 백작령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곳이 바르셀로나 백작령이었다. 이 지역은 점차 프랑크 왕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고, 세력을 확대하여 현재의 카탈루냐와 비슷한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다. 12세기에 쓰인 중세 라틴 연대기 ‘리베르 마이올리키누스’에서 라몬 베렝게르 3세를 ‘카탈루냐의 영웅’으로 묘사한 것이 역사상 ‘카탈루냐’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한다.¹⁾

한편, 1137년 바르셀로나의 백작 라몬 베렝게르 4세가 아라곤의 공주와 결혼하여 아라곤 연합왕국을 형성했으며, 이 왕국은 지중해의 여러 지역을 병합하고 이슬람세력 수중에 있던 발렌시아를 점령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이로부터 이 연합왕국에는 기존의 아라곤과 카탈루냐와 더불어 발렌시아가 포함된다. 특이한 점은 연합왕국 내의 각 지역들이 스스로의 제도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고유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갔다는 점이다.

카탈루냐와 카스티야가 하나로 된 계기는 국토회복전쟁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인 1469년에 있었던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 공주와 카탈루냐가 속해있던 아라곤 연합왕국의 페르난도 왕자의 결혼에서 비롯된다. 이들이 모두 각 나라의 왕위 계승권을 소유했기에 결혼 후 두 왕국은 1479년에 통합하기에 이른다. 반도 내의 여러 기독교 왕국들을 하나로 결집한 스페인은 1492년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콜럼버스의 항해를 통해 아메리카를 정복하면서 스페인 제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2. 스페인 제국과 카탈루냐 반란

16세기 초 이베리아 반도는 표면상으로 통일을 이루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종적·종교적 다양성의 문제가 불씨로 여전히 남아있었고, 각 지역마다 자체의 고유 제도와 정체성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었다. 카탈루냐가 중심이었던 아라곤 연합왕국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회, 통화, 관습, 세제를 유지했고 스페인 국왕은 카탈루냐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었으며, 카탈루냐어는 여전히 그 지역의 공용어였다(김원중 2008, 487). 가톨릭 공동왕 이후 출범한 스페인 국가는 당시 그것을 구성하는 각 영역에 고유한 정체성과 거의 완전한 자치가 허용되는 일종의 연방제적 형태를 유지했던 것이다(김원중 2017). 그렇다면 결국 16세기에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에 영토를 보유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스페인은 실상 카스티야 중심의 스페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이러한 스페인 제국은 인종언어문화적으로 복잡한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1)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07477&cid=40942&categoryId=40299> (검색일: 2018. 02. 02.).

‘순혈’에 기반을 둔 종교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여타 유럽 국가들이 근대로 접어드는 시기에 중세적인 종교성에 집착하고 많은 전쟁에 개입하다 보니 스페인은 16세기 후반 들어 쇠퇴하기 시작하고 17세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위기의식이 팽배해진 가운데 펠리페 4세가 왕위에 있던 17세기 전반에 실권자였던 올리바레스 백작은 일련의 개혁으로 스페인을 부활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계획은 전술한 바와 같이 카스티야 중심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잉태되었다. 올리바레스는 자신의 비망록에서 카스티야의 군주는 곧 스페인의 군주이며, 펠리페는 역사상 가장 축복받는 국왕이 될 것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곧 카스티야의 쇠퇴가 스페인의 쇠퇴이며 카스티야의 회복은 곧 스페인의 회복이라는 사고로 이어진다(김미경 2009, 8). 말하자면, 그는 카스티야를 중심으로 스페인을 실질적으로 통합시키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다른 지역들의 도움을 구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 지역의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스페인 전역을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서 연합군을 창설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카탈루냐인들은 이 계획을 자신들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음모로 생각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올리바레스의 궁극적 목표가 한 왕, 하나의 법 그리고 하나의 화폐(un rey, una ley, y una moneda)를 가진 제국의 건설이라는 소문은 그들의 저항의지를 더욱 굳게 했을 뿐이다.”(존 H. 엘리엇 2000, 379)

결국 올리바레스의 계획은 카탈루냐를 비롯한 아라곤, 발렌시아 등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1635년 5월에 프랑스와 전쟁이 발발하자 이 나라와 국경을 접한 카탈루냐의 지원이 절실하였기에 그는 이 지역에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강요하였다. 이에 반발한 카탈루냐는 1640년에 반란을 일으켰고, 프랑스의 지원을 받으면서 스페인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카탈루냐의 지배층은 분열된 채 통치의 구심점을 찾지 못했고, 프랑스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문제로 관심을 돌리자 카탈루냐 반란은 1652년 10월에 종결되어 이 지역이 다시 스페인의 한 부분으로 돌아갔다.

존 H. 엘리엇(2000, 404)은 카탈루냐인들이 마드리드와의 끈을 항구적으로 단절하는 데에 실패한 것은 혁명 초기에 기본적으로 불확실했던 그들의 목표와 전통적 사회분열을 초월하는 국민적 통일감과 목적의식을 만드는 데에도 계속 실패했음을 반영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시기에 반란을 일으킨 포르투갈이 이미 준비된 왕을 중심으로 스페인에서 성공적으로 독립을 이루어냈다면, 카탈루냐는 사회 각 계층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통치체계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다시 스페인으로 귀속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반란은 카스티야의 패권에 대항하여 카탈루냐의 민족주의가 발현된 최초의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7세기에 수많은 전쟁에 개입하면서 국력을 소진하며 쇠퇴기에 접어드는 스페인은 합스부르크 왕조를 이어갈 후사가 없자 18세기에 접어들 무렵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카탈루냐의 운명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3. 스페인 왕위계승전쟁과 카탈루냐의 문제

카를로스 2세 이후 왕위를 계승할 후사가 없자 당시 스페인 왕조와 관련이 있던 유럽의 대표적인 왕조들인 부르봉 왕조와 합스부르크 왕조가 스페인 왕위 계승을 놓고 대립하면서 1702년에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은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전 양상을 띠며 복잡하게 전개되었는데, 영국과 네덜란드는 부르봉 왕조를 중심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이 연합하는 것을 막고자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하지만 다른 변수가 등장했는데, 부르봉 왕조의 팽창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이 스페인 왕위 계승자로 지지하던 합스부르크 왕조의 카를 대공이 신성로마제국 황제에 즉위하자 유럽 열강들은 그가 스페인의 왕위까지 차지할 경우 부르봉 왕조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염려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국과 네덜란드는 생각을 바꿔서 부르봉 왕조 출신의 펠리페 5세가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포기한다면 스페인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고, 이는 1713년의 유틸레흐트 조약으로 공식화되었다(존 H. 엘리엇 2000, 427).

결국 스페인의 왕위를 차지한 펠리페 5세는 프랑스의 절대주의 체제를 스페인에 도입했는데, 이는 이 나라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한다. 부르봉 왕조가 스페인에 정착시키고자 했던 근대적,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각 지배영역의 자치가 지속되는 것은 점차 비정상적인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존 H. 엘리엇 2000, 427).

이러한 정책은 특히 왕위계승전쟁 기간 동안 더 많은 자치권을 얻어내려고 부르봉 왕조 반대편인 합스부르크 왕조를 지지하며 싸웠던 카탈루냐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카탈루냐는 이 전쟁 당시 펠리페 5세 군대의 포위에 끝까지 저항했지만 1714년 9월 11일에 결국 항복하며, 자치권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제반 기구와 관련 법 체계를 잃게 된다. 카탈루냐뿐만 아니라 1716년 공포된 '새 정치질서를 위한 법령(Decretos de Nueva Planta)'으로 스페인은 기존의 각 지역들의 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로 전환하였다.

결국 부르봉 왕조의 스페인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전쟁이후 스페인은 중앙집권적 국가로 변모하게 된다. 그동안 하나의 작은 국가적 성격을 띠었던 카탈루냐를 비롯한 각 지역은 자치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은 다른 한편으로 카탈루냐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가져다주었는데, 그것은 스페인 해외식민지들과의 무역이 이제 카탈루냐인들에게도 개방되었기 때문이다(김원중 2008, 488). 더불어 그러한 경제적인 발전은 카탈루냐를 문화적으로 융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830년대 시작된 카탈루냐의 언어와 문화를 부흥시키려는 '카탈루냐 르네상'

스 운동'이 그것이다.

4. 카탈루냐 르네상스 운동에서 프랑코 독재 체제로

부르봉 왕조의 강압정책에 의해 숨죽였던 카탈루냐 민족주의는 19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이는 정치적 패권을 갖지 못한 카탈루냐가 경제적인 면에 집중함으로써 '스페인의 맨체스터'라고 불리듯 괄목한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그 결과로 부르주아 시민 사회가 형성된데 기인한다. 경제력을 갖게 된 이들은 단지 일상어로만 한정되었던 카탈루냐어로 문학 활동을 하는 등 카탈루냐의 문화를 부흥시키려는 일련의 운동을 전개한다. 그런데 1830년대에 카탈루냐 언어와 문화의 문학적 르네상스로 출발한 카탈루냐주의는 1890년대에 카탈루냐어 사용 지역의 자치를 요구하는 카탈루냐 정치운동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된다(레이몬드 카 외 2006, 284).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카탈루냐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 지역의 민족주의가 부르주아 계층뿐만 아니라 지식인, 노동자 계층으로 확산되며, 지역 자치에 공감하는 스페인내 공화주의자들과 협력하는 단계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1931년 제2공화국이 선포되자 스페인에는 사회 다방면에 걸쳐 민주적인 개혁에 대한 열망이 넘쳐났는데, 이는 그동안 억압받던 각 지역의 자치권을 회복해주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로 카탈루냐 역시 자치정부를 구성하게 되었고 1932년 자치법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공화주의 정부의 등장으로 꽃피었던 카탈루냐의 자치는 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 지주와 가톨릭교회 등 스페인의 전통적인 기득권층의 지지를 받은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켜 내전이 발발하자 카탈루냐 지역은 자신들의 자치를 인정해준 공화파를 지지하며 싸웠으나 결국 1939년 프랑코 측에 패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내전에서 승리한 프랑코는 다양한 모습으로 분열된 스페인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하나의 스페인, 하나의 인종, 하나의 종교(Una España, una raza, una religión)'를 표어로 내세우며, 내전에서 승리한 지역적 차이와 사상적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한 스페인을 세우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그의 연설문에 잘 표명되어 있다.

우리의 승리는 '안티 스페인'에 대항한 스페인의 승리였으며, 나락으로 한없이 추락하던 한 나라를 구하려는 영웅적인 재정복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스페인의 모든 계층과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Franco 1949, 21).

이렇듯 프랑코는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상을 억압하고 지역적으로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반(反) 스페인적인 것으로 보고 강력히 탄압하였다. 하지만 지역 자치에 대한 프랑코의

억압은 현상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었을지 몰라도 주민들의 마음속에 반대로 지역 정체성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프랑코의 ‘보복의 정치’가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오늘날 카탈루냐와 바스크 민족주의의 분출을 가져온 강력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김원중 2008, 498). 따라서 1975년 프랑코가 죽자 자연스럽게 스페인의 민주화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지역 자치의 문제는 스페인이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Ⅲ. 스페인의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제도화

스페인인들은 프랑코 사후 헌법을 통해 지역 자치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새 헌법 제정이 쉽지 않은 작업이었으나, 정치세력 간의 다각적이고 빈번한 협상을 통해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도 않지만 모두를 실망시키지도 않는 헌법’의 기초안을 마련하였다(송기도 외 1998, 148-149). 이러한 타협의 산물로 1978년에 공포된 헌법 제2조에는 국가와 지역 사이의 오래된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헌법은 스페인 국가의 해체할 수 없는 통일성, 공통적이고 분리될 수 없는 모든 스페인인들의 조국에 기반을 두며, 그것을 구성하는 ‘민족들과 지역들’의 자치권을 그리고 그 모두 간의 결속을 인정하고 보장한다.

특히 이 헌법은 스페인을 ‘자치주들로 구성된 국가(Estado de las autonomías)’로 규정하며, 각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확실한 연방주의(federalismo)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 지역국가의 주권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지방 법령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방 정부에 양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매우 불만스러운 것이었다(임호준 외 2000, 71). 그런데 이는 실상 국가와 지방에 관한 이 헌법의 핵심 내용이 갖는 모호성에 기인한다. 그것은 헌법이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국가로서 스페인의 통일성을 명시함과 동시에 각 지역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로 상충된 개념들이 충돌할 소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스페인의 각 지역은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지방정부를 구성하였지만, 자치의 개념과 범위를 놓고 중앙정부와 이해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었다. 1980년대 초 ‘지방자치 조율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이 그 예이다.²⁾

이러한 상황에서 카탈루냐 민족주의당인 ‘통합과 연합(Convergència i Unió)’을 이끌었고, 198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제네랄리타트(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수반이었던 조르디 푸졸(Jordi Pujol)은 좌우 이념에 상관없는 실용노선으로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자치권 확대를 꾀하였다. 1993년 스페인 사회노동당(PSOE), 1996년 국민당(PP)이 선거에서 각각 과반에 실패하여 정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자 푸졸은 자신들의 원내 의석을 기반으로 적절한 협상을 통하여 정부 구성을 도와주고 대신에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을 강화하는 등 자치권 확대의 노력을 이어갔던 것이다.

이렇듯 스페인의 민주화 이후 카탈루냐의 민족주의 운동은 제도적으로 자치권을 보장받고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2003년 카탈루냐 선거에서 자치 문제를 보다 능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치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카탈루냐 민족주의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다.

IV. 자치권 확대에서 분리 독립 움직임으로

2003년 카탈루냐에 새로 들어선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1979년 자치법보다 자치권이 훨씬 강화된 새 자치법 제정을 추진했는데, 이 새 자치법은 무엇보다도 재정 문제에서 지역 자치권을 강화하고, 카탈루냐를 하나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것과 달랐다(김원중 2017).

자치를 넘어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으려는 내용을 담은 이 자치법은 2006년에 공표되고, 주민 투표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았다. 스페인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국민당은 이 법에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고, 헌법재판소는 4년간의 논의 끝에 2010년 이 자치법의 일부 조항들이 헌법 정신 침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국가(nación)’라는 용어를 단일한 국가로서 스페인의 존재 의미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카탈루냐어에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 지방정부 자체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 등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카탈루냐인들은 자신들이 개정했던 법의 핵심적인 조항들이 인정되지 않자 분노하며 2010년 7월 10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단순히 자치의 확대가 아닌 분리 독립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하게 된다. 이로부터 카탈루냐의 민족주의 운동이 전통적인 목표인 ‘더 많은 자치권 확보’에서 분리 독립 요구로 ‘질적인 도약’을 이루었으며,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일촉즉발의

2)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송기도 외(1998, 156-157)를 참고하기 바란다.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이다(김원중 2017).

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반발 같은 직접적인 계기 이외에 카탈루냐인들이 2010년을 기점으로 분리 독립으로의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인 이유를 스페인 왕립 엘카노 연구소(Real Instituto Elcano)가 분석한 자료³⁾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적인 요인으로 유럽연합의 탄생으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초국가적인 영역이 확장되면서 한 지역은 독립으로 인한 정치·경제적인 위험을 덜 느끼게 되었다. 다른 외적 요인으로는 2012년 이후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됐던 분리 독립을 향한 일련의 움직임이 카탈루냐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내적인 요인으로는 카탈루냐 주정부가 교육과 지역 방송을 통해서 카탈루냐어 사용을 강화했고 주민들에게 스페인과는 다른 카탈루냐 고유의 정체성을 고취시켜왔던 점이 언급된다. 또한 전술한 자치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스페인의 경제위기로 카탈루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 점을 들 수 있다.⁴⁾ 이밖에 중앙집권적인 국가 형태를 선호하는 보수주의 국민당이 2011년 말에 집권한 것도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 의지를 부채질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분리 독립에 대한 열망이 최고조로 달한 시점은 카탈루냐 지방정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즈음이며, 이러한 열기를 기반으로 카탈루냐 지방정부는 독립을 향한 움직임을 실질적으로 전개했던 것이다.

2014년 11월에 카탈루냐의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고, 2015년 9월에 있었던 카탈루냐 의회 선거에서는 분리 독립을 찬성하는 측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한편, 카탈루냐 의회는 2015년 11월 9일에 열린 회의에서 18개월 이내에 카탈루냐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독립 절차 개시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2017년 6월 9일에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이 2017년 10월 1일에 카탈루냐의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⁵⁾

이에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10월 1일 실시 예정인 주민투표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지하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 투표가

3) 출처: www.realinstitutoelcano.org (검색일: 2018. 01. 07).

4) 카탈루냐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한 귀베르나우는 특히 카탈루냐의 재정 부담 가중을 독립 움직임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데, 스페인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정적 조정에 의해 카탈루냐에서는 GDP의 8%에 해당하는 재정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카탈루냐 역사상 처음으로 재정적 자치권에 대한 주장이 급증하고 분리 독립 주장이 합법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언급한다(김병곤 외 2014, 194 재인용).

5) 출처: <https://ko.wikipedia.org> (카탈루냐 독립선언) (검색일: 2018.02.08).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위헌판결을 내렸다.

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스페인 당국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실시되었다. 카탈루냐 당국에 의하면, 투표권이 있는 사람 중의 약 43%가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에 90%가 독립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독립 찬성이 다수일 경우 48시간 내에 독립을 선포하겠다고던 푸지데몬은 후폭풍을 우려해 독립선언을 연기했지만, 결국 10월 27일에 카탈루냐 의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독립선언의 승인에 대한 안전을 가결했고, 카탈루냐 지방정부는 즉각 스페인으로부터 카탈루냐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스페인의 공통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치지역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제155조를 발동하여 카탈루냐의 의회와 정부를 해산하고 관련자를 해임하였으며, 새로운 자치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 중앙정부 대응 이후 독립 선언에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반역 등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수배 중이며, 자치 정부 수반이었던 카를레스 푸지데몬은 벨기에로 피신하여 원격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2017년 12월 21일 새 자치정부 구성을 위한 조기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분리 독립을 원하는 진영이 과반을 확보함으로써 카탈루냐의 독립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게 되었다.

V. 결론

스페인의 사상가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오늘날 스페인은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밀폐된 여러 개의 칸막이 방이라고 말한다(Ortega y Gasset 1983b, 74). 스페인의 심각한 지역 분리주의 경향을 암시하는 이 말은 스페인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다양성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달리 생각하면 스페인의 정체성 자체가 지역 간의 차이와 다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스페인은 인위적인 통합에의 노력을 이어왔으며 이는 오히려 지역성을 강화하고 분출시키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카탈루냐는 이러한 면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최근의 분리 독립 움직임은 스페인의 역사적 배경과의 관련 속에서 생각할 때 그 맥락이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실제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느냐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몇 가지 논점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역사상 카탈루냐가 독립된 국가인 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통 카탈루냐인들은 카탈루냐가 스페인의 여타 지역과는 다르게 중세기에 프랑스의 영향 하에 있었고, 자치권을 얻은 이후 독립된 의회와 법체계를 갖는 등 독립 국가에 준하는

길을 걸어왔다고 본다. 그런데 18세기 초 왕위계승전쟁의 결과로 주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독립 운동으로 이를 되찾아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카탈루냐는 역사상 국가의 형태로 존재한 적이 없다는 반론 또한 상당히 존재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국가의 개념에 대한 상이한 관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주요 동인이 이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기반을 둔 민족 정체성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 이 부분 역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카탈루냐인들의 정체성은 크게 카탈루냐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서 순전히 카탈루냐인으로서의 언어·문화적 정체성을 갖는 경우, 일자리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와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고 스페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경우,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카탈루냐인이자 동시에 스페인인으로서의 이중정체성을 갖는 경우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렇듯 이 지역 사회에 서로 다른 세 개의 목소리가 균등하게 내재되어 있기에 일방적인 독립 운동의 추진이 내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스페인의 경제 위기로 카탈루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에, 스페인에서 분리되면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한 의문 역시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카탈루냐의 독립이 현실화될 경우 스페인과 카탈루냐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주요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결정하거나 검토한 예와 카탈루냐가 국제 무역에서 스페인의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점을 상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서 보듯이 분리 독립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리 독립할 경우 국제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회원국 내의 일부 지역이 독립할 경우 그 지역은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탈루냐는 독립하는 순간 유럽연합의 테두리 안에 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회원국 내의 여러 나라들이 카탈루냐의 독립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독립의 여파가 분리 움직임으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유럽의 여타 지역으로 파급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탈루냐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독립 움직임을 전개할 경우 국제 사회에서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른 호응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면들과 더불어 스페인 헌법이 단일한 국가 개념을 손상시키는 한 지역의 독립을 불허하기에 현 상황에서 카탈루냐가 독립을 이루어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독립을 원하는 카탈루냐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저항을 통해 꾸준히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국내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결국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좀 더 많은 자치를 얻어내는 것이 될 것”(김원중 2017)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김미경. 2009. 올리바레스 개혁 정책의 실패와 스페인 체제의 위기. 대구사학 94, 217-248.
- 김병곤·우윤민. 2014. 네셔널 아이덴티티와 분리독립: 스페인-카탈루냐를 중심으로. 유럽 연구 32(4), 189-211.
- 김원중. 2008. 에스파냐 지역 민족주의의 과거와 현재: 카탈루냐와 바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서양사 연합학술발표논문집, 485-506.
- _____. 2017. 카탈루냐 민족주의 운동,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출처: <https://goo.gl/qTWiCA> (검색일: 2018. 02. 03.).
- 레이몬드 카 외. 2006. 김원중·황보영조 역. 스페인사. 까치.
- 송기도·최낙원·최윤국. 1998.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연구: 분권의 확대와 지역분쟁. 라틴아메리카연구 11, 133-179.
- 임호준·홍두승. 2000. 스페인의 지역 민족주의: 정치적 자치와 문화 정체성. 국제지역연구 9(2), 63-84.
- 존 H. 엘리엇. 김원중 역. 2000. 스페인 제국사 1469-1716. 까치.
- 카를로스 푸엔테스. 서성철 역. 1997.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까치.
- Franco, Francisco. 1949. Franco ha dicho. Madrid: Voz.
- Ortega y Gasset, José. 1983a. Obras completas 1. Madrid: Alianza.
- _____. 1983b. Obras completas 3. Madrid: Alianza.
- 스페인 왕립 엘카노 연구소(Real Instituto Elcano). 출처: www.realinstitutoelcano.org (검색일: 2018. 01. 07.).
- 두산백과. 카탈루냐의 역사. 출처: <https://goo.gl/F6SfYV> (검색일: 2018. 02. 02.).
- 위키백과. 카탈루냐 독립선언. 출처: <https://goo.gl/PPnzvf> (검색일: 2018. 02. 08.).

● 투고일: 2018.02.09. ● 심사일: 2018.02.11. ● 게재확정일: 2018.02.16.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atalanian Independence Movement and Its Current Situation

Cho Minhyun (Daegu Catholic University)

In the fall of 2017, the pro-independence movement of Catalonia, a Spanish autonomous region, became an important issue. This movement has its roots in the historical reality of Spain as a nation which comprises diverse languages, cultures and nationalist sentiments, which have constituted the leading forces towards independence and secessionism in some region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Catalonia independence movement. To this end, I will first examine the historical situation from the formation of Catalonia to Franco's dictatorship, followed by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regional autonomies after the Spanish transition to democracy. Finally, a careful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in Catalonia will be undertaken in order to try to more fully comprehend this pro-independence movement beyond the expansion of Catalonia's autonomy.

〈Key words〉 Catalonia, Autonomous region, Independence movement, Spanish history